



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전통에서 중요한 종교인들이다.

유대인들은 종교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인을 적으로 간주했다.

사마리아인

제사장

레위인

남자

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. 강도들은 상처를 입은 그 남자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다.

여관

사마리아인은 남자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다.

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.

“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.”

선한 사마리아인

상대 팀 선수는 다친 선수에게 다가가 그가 괜찮은지 확인한다.

코치와 팀 동료는 다친 선수가 괜찮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.

부상당한 축구 선수

팀 동료

상대 팀 선수

코치